

## 믿음의 초보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성경: 히5:12-6:3

내일부터 보름 동안 미국 여행, 캘리포니아주 LA,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3년 만의 여행, 여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잘 실감이 나지 않는다.

비행기를 탈 때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면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바울의 표현 목사는 어떤 면에서 아버지와 비슷한 존재(고전4:15)

아버지가 해야 할 일,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 감당  
또 먹여서 키워야 한다.

이 교회에 오시는 대다수 성도, 이미 다시 태어나신 분들:

그래서 목사는 1:4의 비율로 구원과 성화를 가르친다.

부모에게 가장 슬픈 일: 먹여도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것

미국으로 가면서 이 문제를 짚어야겠다고 생각함

오늘 < > 초보 원리, 완전함, 문제 있는 사람의 징후, 어떻게 고칠까?

### 히브리서

사도 바울,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1차 대상, 유대인 크리스천들 혹은 유대인들 초기 기독교 전파 시기에는 여전히 유대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유대인 교사들은 기독교로 돌아선 형제들에게 손을 뺀어 그들을 유대교로 복귀시키려 하였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 교사들의 주장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의 제사장 체계와 그 안의 모든 희생물보다 뛰어나심을 증명한다. 또한 사도는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배도의 물결에 휘말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 구약 성경 이야기 배경, 대단히 중요한 책

### 히브리서 5장 요약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2:16-18; 3:1; 4:14-15)을 설명한다. 3:1, 4:14

그리고 5장에서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이끌고 나간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필수적인데 기독교에도 그러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 기독교의 대제사장인신

예수님은 지위나 성품이나 희생 예물 측면에서 유대인 대제사장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창14장

의의 왕, 샬렘, 즉 평화의 왕,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방 왕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감,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하기 위해 가나안의 북부까지 가서 그를 구출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그에게서 십일조를 받았다(창14:18-20). 이론 전의 제사장,

성경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그의 계보, 출생, 죽음 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며 그는 선조나 후손 없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홀로 서서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로써 그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토록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 왜냐하면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들의 경우 그들의 기원과 삶과 죽음 등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시110:4; 히7:1-28).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이 성령님, 예녹, 셈 등의 의견을 내었지만 가장 안전한 의견은 그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의로운 왕이요 화평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분께 경배하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친구였으며 그보다 지위가 높은 존재였다. 그런데 왜 그가 갑자기 나왔을까?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설명하려 한다.

###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11-14)

즉 바울은 지금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무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그런데 이들이 멜기세덱에 대해 이해할지 걱정이 된다.

왜? 그들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dull), '게으르다'(6:12)와 같은 말, 어리석다

1. 듣는 것이 둔하다(11절). 이들은 고난들로 인해 말씀에서 떨어져나가기 시작했고(히2:1) 의심하고 있다(3:7-4:13). 그 결과 그들은 듣는 일에 둔한 존재가 되었다. 즉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행할 능력이 없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베레아 성도들과 대조가 됨(살전2:13; 행17:11-12).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이 흥미가 없다. “목사가 오늘도 같은 말을 하는구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뭐”, 혹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 정신 집중이 안 된다. 삶에 변화가 없다.
2. 가르칠 능력이 없다(12절 초반). 목사 가르치는 은사(선물)가 있어야 한다(딤후3:2). 그러나 목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과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또 다시 기초를 배워야 한다.
3. 아기 음식만 먹어야 한다(12-13절). 단단한 음식은 꿈도 못 꾸고 젖을 먹어야만 한다. 젖은 말씀들의 기초 원리를 뜻한다: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승천, 구원 등. 단단한 음식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 영적 전투 군사, 특히 여기서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을 공부하여 구약의 대제장과 어딘 차이가 있는지 아는 것(히7-10장), 젖은 어릴 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젖 먹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내내 구약 이야기만 하는 것, 신약의 요한복음만 내내 공부하는 것, 이제는 구약의 레위기, 에스겔서도 공부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로마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등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4. 말씀 사용이 미숙함(13절). 영적 분별력이 없다. 어떤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목사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말씀 구분(딤후2:15), 경륜 구분, 오순절 은사 운동, 로마 카톨릭 교회, 재림의 징조, 이스라엘의 역사 등
5. 육적 감각들이 중요하듯이 영적 감각들도 중요하다. 그런 감각들을 단련해야 한다.  
영적 감각들을 훈련하는 것(딤후4:7-8),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지 못했고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비슷한 길로 가려 함. 양다리 걸치고 산다.

권면: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히6:1-3)

예수님의 완전함(5:8-9), 자신의 사역 완수,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마찬가지로 성도도 태어나면 젖을 먹고 자라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인 군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완전함이다.  
이 세상에 나오려면 반드시 베이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베이비로만 남으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 베이비로 태어나는 목적: 성장하기 위함. 벨전2:2,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만 한다(6:1).  
1-3절: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것들(여기서는 6가지)을 두고 떠나 성장해야 한다.  
여기의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은 5:12 첫째 기초 원리들과 같은 말이다. 성경 걸장에서 맴 돌지 말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자. 기초를 놓고, 놓고, 또 놓고 하지 말고  
(\* 여기의 완전함은 결코 무죄를 말하지 않는다.

1.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영적 생활의 시작, 구원받으려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한다. 물론 그 뒤에도 죄들의 자백(시인)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 특별히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자주 하면 안 된다.
2. 믿음(행20:21), 크리스천 삶에서 항상 필요하다. 구원, 성화,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  
바울의 고백: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히11장
3. 침례(성령 침례, 물 침례), 유대인들, 1. 여러 가지 정결례 행사, 원래 의미로는 담그는 것(막7:4),  
2. 개종자들에게 주는 침례, 3. 물 침례, 4. 성령 침례  
이런 것들은 유대인 초보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것들
4. 안수는 구약에서 희생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통해 많이 나온다(레16:21). 이런 예식은 안수를

통해 사람의 죄를 무죄한 짐승에게 옮기는 것을 상징했다. 안수는 또 축복하는 것(창48:18), 임직식(신 34:9) 등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아이들과(마19:13, 15) 병자들(마9:18)에게 안수하셨다. 초대 교회에는 안수가 병 고치는 것, 성령님을 받는 것(행9:17), 교회에서의 특별한 일을 위해 사람을 구분하는 것(행6:6), 선교사 파송(행13:3) 등과 상관이 있었다. 그런데 안수는 무슨 미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안수했을 뿐이다. 안수는 보통 기도와 함께 이루어졌다.

5. 죽은 자들의 부활(행24:14-15; 요5:24-29; 계20-4-6), 사두개인들이 부정하는 교리(막 12:18), 철학자들이 조롱하는 교리(행17:18),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요5:29),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립할 수 없다. 왜 믿는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려고(히11: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만 매이면 안 된다. 이것은 초보 원리이다. 확신의 대상이다. 알가알부할 것이 아니다.
6. 영원한 심판(행17:30-31), 심판이 영원히 지속됨을 뜻하지 않는다. 정죄의 심판, 처벌이 영원하다. 보상의 심판, 보상이 영원하다.

###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3).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은혜의 수단을 강구해 주시고, 성도들의 노력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시고 성공할 때마다 명예롭게 해 주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더 완전한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완전하게 되신 대표적인 분, 예수님, 어떻게 순종함으로(5:9; 2:10)

그러니까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을 신뢰와 순종으로 이겨내야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다.

Cross 전에 Crown이 있다.

###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다.

히11:27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도록 오랫동안 방치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된다.

모든 일이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생각해도 좋지만 성경과 비교해서 옳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

지난 2주, 두어 분에게 간단하게 글을 쓸 상황

한 분: 앞날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겠다.

다른 한 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모든 사람을 결국은 구원하시고 지옥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두 분 모두 스스로 무언가를 상상하고 있다. 상상하고 있다. 꾸며내고 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 속에서 무슨 일이 생각나면 그것이 성경과 맞는지 점검해야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

한 분: 생기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자꾸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고후10:3-5

3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견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5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6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5절을 늘 명심해야 한다.

Casting down imaginations, and every high thing that exalteth itself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and bringing into captivity every thought to the obedience of Christ;

다른 분: 역시 마찬가지로, 교리,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한다.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

#### 이런 사람들이 갖는 복과 소망

보상의 복과 소망(11-12),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영원한 보상, 천국

완전함의 보상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이 복이 모든 성도들에 임하기를 원한다.